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여로보암의 죄"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에는 여러 차례 "여로보암의 죄" 혹은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범죄한 왕들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은 어떠한 죄를 지은 것일까요?

성경에는 왕이나 지도자들이 타락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면 그것이 왕이라는 개인이 죄를 범하는 차원을 넘어 백성 전체에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오늘 본문 14장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였지마는 나이가 들어서는 그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을 섬기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이스라엘 열두 지파 가운데 열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11:29-32).. 이 소식을 들은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자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피신하여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11:40).

솔로몬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쪽 유다의 왕이 되었고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야 하는 성전은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생각하기를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는 필히 자신을 죽이고 르호보암을 따를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은 이런 일이 생길 것을 대비하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벧엘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이 두 금송아지를 가리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신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이 금송아지를 섬기라고 공표하였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해낸 신이라고 부르며 섬겼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번에는 그와 같은 금송아지를 두 개나 만들었습니다.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다시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30절에는 단호하게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라고 말씀하면서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단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아예 자신이 살고 있는 세겜을 중심으로 북쪽 이스라엘을 남쪽 예루살렘과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여로보암은 곳곳에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역대상 13장9절에 보면 여로보암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 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풍속을 따라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만 가지고 오면 원하는 대로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여덟째 달 15일을 절기로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자신이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하고 벧엘에 만든 제단에 올라가 분향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하여 북쪽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들고 금 송아지를 섬기게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를 되짚어 보면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기우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국은 여로보암과 백성 전체가 이방 민족과 같은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쓸데 없는 망상은 여로보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범하게 하였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선지자 아히야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11:38).”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유다를 맡기시는 것과 같이 여로보암에게는 북쪽 이스라엘을 주셨습니다. 만일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면 자신의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과도 함께 하셔서 여로보암의 집을 다윗의 집과 같이 견고하게 세워주시며 이스라엘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마음 속에 찾아온 불신과 걱정, 근심을 자신이 해결하려고 온갖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다는 것이 고작 금 송아지였습니다. 최악의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는

북쪽 이스라엘 왕들도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그러한 여로보암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로보암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벧엘에 서서 분향하고 있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지만 여로보암은 그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을 때에도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은 22년 동안이나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결국에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죽었습니다.

처음 여로보암이 왕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를 세우시던 때를 생각해보면 여로보암의 일생은 참으로 헛된 인생일 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비록 22년 동안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이 세운 계획 덕분에 22년이라는 시간 동안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다고 자화자찬하였을지는 몰라도 그의 인생은 '여로보암의 죄'라는 한 마디로 정리 되는 죄악으로 물든 헛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혹시라도 우리들에게 '여로보암의 죄'가 있다면 오늘 그 죄를 버리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여로보암의 죄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주님께 나아와 그 모든 죄들을 회개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있다면 지금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